



| 특집1 | 특집2 | 북극해항로운항 | 조선 | 북극물류 | 국제협력 |

[특집]

특집1 : 북극해항로 관련 새로운 지도자들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2018. 6. 7.

1. 요약

- 지난 5월18일 푸틴대통령은 행정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였는바, 북극해항로 관련 개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5년 4월 이래 러시아 북극 업무를 총괄했던 로고진 부총리(전 러시아 국가북극개발위원회 위원장)가 물러나고, 대신 현 러시아 극동관구의 대통령 전권대표인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기존의 극동 업무 외에 추가로 북극 관련 업무도 맡게 되었음.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신임 국가북극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음).
- 또한 북극해항로 운항업무를 관리했던 러시아교통부의 장관을 비롯하여,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러시아극동개발부 장관이 모두 교체되었음
- 러시아 북극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로고진 부총리를 비롯한 이전의 북극 관련 책임자들이 교체되면서 러시아의 북극 개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음.

2. 북극해항로 관련 개각 세부 내용

- 러시아 북극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가 퇴임하고, 극동관구의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1956년 생)가 기존의 극동 사회경제발전 업무 외에 북극 업무도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음.
- 러시아교통부의 소콜로프 장관이 퇴임하고, 대신 교통부의 예브게니 디트리흐 차관(1973년생)이 신임 장관이 되었음.
- 또한, Yamal-Nenets 자치주의 드미트리 코빌킨(1971년생) 주지사가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 및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음.
- 러시아 극동개발부 갈루쉬카장관은 알렉산드르 코즈로프 장관(1981년생)으로 바뀜.

3. 개각에 따른 북극해항로 관련 영향

○ 지난 1년간, 러시아 정부 관료들과 국영기업들은 북극 개발 관리감독 업무를 두고, 계속 싸움을 벌여왔음. 북극해항로, 북극자원 수출, 북부지역으로의 보급, 북극 국방 관련 업무들을 러시아교통부와 북극해항로국(NSRA)에 계속 맡겨둘 지, Rosatom사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 문제가 있었고, 작년 11월 푸틴대통령이 Rosatom가 NSR 관리 및 개발 업무를 맡도록 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음.

○ 푸틴대통령이 북극해항로 관리 및 발전업무를 Rosatom사에 맡기도록 했지만, 그동안 관련 법령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NSR 조직 개편 논의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 이제 이러한 모든 결정은 새로 북극 업무를 관장하게 된 트루트네프(Trutnev) 부총리가 하게 될 것으로 보임.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북극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2004-2012년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어서 북극의 잠재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

○ 예브게니 디트리흐 러시아교통부 신임 장관(1973년생, 전 교통부 차관)은 북극해항로 관련 본인의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은 상태임. 현 러시아교통부 올레르스키 차관은 지난 4월까지도 북극해항로국(NSRA)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4.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의견

○ 작년 11월 푸틴대통령이 국영원자력회사인 Rosatom사가 NSR 관리 및 개발 업무를 맡도록 승인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법안 준비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 금번 5월18일의 개각으로, Rosatom사를 지지했던 로고진 부총리가 퇴임하고, 새로이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북극의 지도자가 되었고, 교통부 장관도 바뀌어서 러시아정부의 북극해항로 관련 정책방향을 당분간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임.

○ 현 극동관구의 대통령 전권대표인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북극 발전 업무까지 맡아서, 그의 극동개발 경험을 감안,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북극 발전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푸틴대통령이 북극해항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NSR 상의 물동량도 2025년까지 8천만톤으로 증대시키도록 지시한 바 있어서, 막중한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음.

○ Yamal-Nenets 자치주의 드미트리 코빌킨 주지사는 Yamal LNG 및 Novy 유전 프로젝트 등 지역 내 대형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등으로 업무추진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임

출처: www.kommersantr.ru, 2018.5.29, www.regnum.ru 2018.5.28/30, www.znak.com 2018.5.29, www.thebarentsobserver.com 2018.5.22 등.

특집2 : '북극해항로 경유 북극잠재력 개발' 세션 요약 (2018.5.25.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러시아식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이 5/24-5/26일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었음. 아래 내용은 5월25일 개최된 "북극의 잠재력" 세션의 주요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것임.

1. 주요 결론

1) 북극의 성공적인 개발은 북극해항로의 발전에 달려 있음

- 북극해항로는 러시아 극동과 러시아의 서부지역 간,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결고리임. NSR은 시베리아의 큰 강 줄기를 단일의 교통망으로 통합시켜주고, 항만, 철도, 하천 교통 하부구조를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NSR은 러시아 북부 영토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유용광물 채굴, 채굴된 자원의 수송과 수출, 카보타지 및 트랜질 수송을 보장함 (Rosatom사 알렉세이 리하초프 사장).
- 북부지역의 질적인 개발은, 북극해항로에 의해 보장됨. (노릴스크 니켈사 엘레나 베즈제네쥐니흐 부사장)

2) 북극 개발 - 러시아를 위한 전략적인 사업

- 북극 주제는 최근 러시아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러시아에게 북극은 자원의 보고일 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간의 최단거리 수송로임. (레그넬사 이고르 파블롭스키 부편집장)

2. 주요 문제들

1) 북극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의 부재

- 북극 관련 법령이 주요 문건이 되어야 함, 이 기초 하에 장기 북극 프로그램이 수립될 수 있음 (러시아 천연자원 환경부 드미트리 코빌킨 신임 장관)
- 북극 법령은 넓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함 (Rosatom사 리하초프 사장)

2) 북극해항로 복합발전계획의 부재

- 북극에서의 문제 해결은 공동의 연구작업 없이는 불가능함 (이고리 파블로프스키)
- NSR 발전 전략에 있어서 정부는 법적 규정이 설립되어야 하는 표준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음. 2017년 전략은 완성되지도 못했음. 러시아는 NSR 복합 발전계획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음 (노릴스크 니켈사 엘레나 베즈제네쥐니흐 부사장)

3) 북극의 미흡한 항만 하부구조

- 동남아시아와 유럽간에 수에즈운하 경유 왕복 수송되는 많은 화물들을 북극항로로 유인하기 위한 매력적인 여건 형성이 필요함. (Rosatom사 리하초프 사장)
- 이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비용이 많이 소요됨. 얼마나 빨리 발전되느냐의 여부는 화물의 형태에 달려 있음 (Stena AB사 덴 스텐 올슨 사장)
- 문제는 항만 인프라의 발전 여부로, 북극해항로 상의 항만 인프라는 향후 예상 물동량 대비 매우 낙후되어 있음 (노릴스크 니켈사 부사장)

4) 높은 생태적 위험수준

- 우선적으로 북극항로 상의 석유 유출의 위험을 들 수 있음. 이 외에 운항 선박의 해양생물 및 자연환경에의 영향을 들 수 있음 (세계자연보호기금 알렉세이 크니쥐니코프)

3. 주요 결정들

1) 지역들과 북극 개발의 원칙들 협의

- 지역들의 입장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함. 2년에 한번씩 아르한겔스크에서 “북극-대화의 영토” 포럼이 개최됨. 2019년 3월 5회 포럼 개최 예정. (아르한겔스크 주지사 이고르 오르로프)

2) 단일의 NSR 운영자 설립

- 오늘 참석자들간의 파트너십, 대규모 알리앙스 형성이 주된 과제임. 여러 정부 유관 부처들간의 협력 없이 과제 해결이 불가능함. 정부, 자원채굴회사, 선주 3자 협정에서 비즈니스 과정이 형성되어야 함. (Rosatom사 알렉세이 리하초프 사장)

3) 연중 내내 NSR 이용토록 하부구조 설립

- 정부는 상업적으로 유리한 NSR 연중 이용이 가능토록 (서쪽뿐 아니라, 동쪽에도)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함. 우선 쇄빙선을 발전시켜야 함. 만약 질적인 쇄빙선 인도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화물을 외부로 운송할 수 있고 수에즈 운하 경유 인도양으로 가는 화물들을 끌어 올 수 있음. (노바텍사 데니스 흐라모프 부사장)

-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현재 세척의 쇄빙선이 순차적으로 건조되고 있음(“아르티카, 시비리, 우랄”).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쇄빙선 건조를 향한 첫 걸음이며, 이로서 연중 인도 가능한 쇄빙선단의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임 (연합조선기업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사장)

4) LNG로 운송 (선박연료로 사용)

○ 북극해항로 상의 운송을 LNG로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함 (Sovcomflot 사 세르게이 프랑크 사장)

출처: www.roscongress.rbc.ru 2018.5.25. www.regnum.ru 2018.5.25.

<북극해항로 운항>

○ 프랑스 TOTAL사, Novatek의 Arctic LNG 2의 10% 지분 획득

▶ 5월 24~26일 개최된 상트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양사는 푸틴 대통령과 마크롱 수상이 배석한 자리에서 동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은 TOTAL사가 향후 5%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하고 있음. Novatek사는 총 25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Arctic LNG 2에서 60%의 지분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음.

▶ Novatek의 Mikhelson 사장은 “야말과 기단반도의 풍부한 자원은 LNG프로젝트에 전례가 없는 기회이며, LNG시장에 대해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다. Arctic LNG 2 초기단계에 전문성 있는 파트너가 참여했다는 것이 야말과 기단반도의 LNG 프로젝트가 가지는 높은 경제성과 유망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함. Arctic LNG 2는 세 기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2,000만톤의 LNG를 생산할 것이며, 15.8억 cbm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Utrennoye전이 핵심 가스전임.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25

○ 북극 크루즈 붐

▶ Cruise Industry News는 127페이지에 달하는 2018 Expedition Market Report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북극은 고소득 크루즈 여행객을 위한 활발한 크루즈 목적지가 되고 있다고 함. 올해 진수된 4척의 선박을 포함하여 크루즈 산업은 최근 4년 동안 붐을 형성하고 있음. 현재 80척의 선박이 항해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2019년 11척의 새로운 탐험 크루즈선이 추가되고, 2022년까지 모두 28척이 추가될 것임. 최근 건조되고 있는 극지용 크루즈선은 보다 높은 내빙등급의 선박이며 현재보다 더 고위도의 극지를 항해할 수 있을 것임. 몇몇 선박은 Polar Class 5에 해당하며 한 선박은 북극점에 도달하는 최초의 비원자력선박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22

○ 북극 LNG 사업 촉진을 위해 Novatek 자사 운송회사 설립 결정

▶Novatek이 북극해에서의 운송을 관리할 자회사 Sea Arctic Transport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노바텍사의 이사회는 수송비 최적화, 북극항해 경쟁력 증대, 북극선단의 집중관리를 위해 북극해운회사로 불리는 수송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음. 운송을 담당할 자회사 설립 결정은 북극해항로 상의 운송에 대한 러시아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임.

▶노바텍사는 Yamal LNG(연간 LNG 1,650만톤, 가스 컨테이너 150만톤 생산) 외에, 기단반도에 “Arctic LNG 2” 프로젝트 추진 예정으로, 2023년에 완공이 되면, 연간 2천만톤의 LNG가 추가로 생산될 것임. 노바텍사의 레오니드 미켈슨 회장은 “노바텍사의 장기발전전략은 북극존 소재 야말 및 기단반도의 탄화수소자원 산지에서 2030년까지 5,500만톤 이상의 LNG를 생산하는 것임. 그러므로, 효율적인 북극해항로 수송모델을 설립하는 것은 노바텍사 장기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우선순위들 중 하나임. 노바텍사의 독자 해운회사 설립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수송비 최적화, 노바텍사 북극 프로젝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화된 경영구조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Novatek이 운송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2000년대 노릴스크 니켈사가 직접 자사의 운송선단을 만들면서 독자적인 해운서비스능력을 보유하게 된 과정을 따라 갈 것으로 보임. 현재 노릴스크 니켈사는 다섯 척의 Arc7 선박으로 두딘카와 무르만스크간 왕복운송을 하고 있음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22

○ 노바텍사는 5월초까지 북극 LNG 2백만을 수송하였음

▶Yamal LNG사는 LNG 공장의 첫 번째 train에서 200백만톤의 LNG를 출하했음. 노바텍사 홍보팀에 따르면, 27번째의 LNG 수송으로 200만톤이 넘었다고 함. LNG공급은 2017년 12월초부터 LNG 운반선(Arc7, 7.4만톤, 17만m3)에 의해 시작되었음. 2018년 4월부터는 장기 계약하의 LNG 운송이 시작되었음. Yamal LNG의 두 번째 train은 예상보다 3개월 빠른 이번 가을에 본격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www.seanews.ru 2018.5.8.

○ Yamal-Nenets 자치구 Dmitry Kobylkin 지사의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임명

▶Yamal-Nenets 자치구 지사가 석유가스 개발과 환경전략을 담당하는 러시아 핵심정부기관인 천연자원부 장관이 되었음. Kobylkin은 러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 리더 중 한 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Kobylkin의 천연자원부 장관 임명은 매우 놀라운 소식임. 주지사로 8년간 근무하면서 야말-네네츠 자치구는 전 러시아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음. 거대한 석유가 가스전들이 하나씩 개발되었고, 인프라 건설도 전례가 없을 정도였음. 주요 투자지역은 야말반도이며, 2012년 가스프롬이 Bovanenkovo가스전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뒤이어 Yamal 프로젝트, Novy항 프로젝트, Messoyakha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음. 새로운 파이프라인, 철도, 도로와 공항이 건설되면서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인접 북극권 지역의 인구는 감소했지만 Yamal-

Nenet 자치구의 인구는 5배 증가하기도 했음.

▶1993년부터 북극지역에서 살아온 Dmitry Kobylkin 신임 천연자원부 장관은 현재 47세이며, 2003년까지 석유가스산업에 종사하다가 정치권으로 진입하여 현재에 이르렀음. 2012년부터 천연자원부를 맡았던 Sergey Donskoy 장관 뒤를 잇게 됨. 현재 Dmitry Medvedev 수상 정부에는 10명의 Deputy Premier와 21명의 장관이 있음.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22

○ Arctic Shipping Best Practice 정보포럼 웹포털 개설

▶5월 14일 북극이사회의 Arctic Shipping Best Practice Information Forum이 IMO Polar Code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웹포털(<http://www.arcticshippingforum.is>)을 개설하였음. Polar Code 실행에 필수적인 핵심정보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Arctic Shipping Best Practice Information Forum은 2017년 여덟 개의 국가(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가 Polar Code를 알리고 효과적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22.

○ 크레믈린의 명령: 2024년까지 북극해항로 물동량 8,000만톤 달성하라

▶푸틴 대통령은 5월초 네 번째 집권을 시작하면서, 정부내각에 대해 전략적 목표와 핵심달성지표를 제시하였음. 그 중에서 북극해항로에 대한 야심 찬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2017년 북극해항로로 운송된 물동량이 1,070만톤이 상황에서 2024년에는 8배 증가한 8,000만톤을 달성하라고 하면서, “북극해항로는 러시아 북극과 극동 지역의 개발에 있어 핵심적임. 2025년까지 북극해항로의 물동량은 10배 증가하여 8,000만톤에 달할 것이다” 고 강조함.

▶푸틴대통령의 지시는 기존 천연자원부가 이전에 제시했던 추정치를 초과하는 것임. 천연자원부에서는 2025년까지 6,700만톤, 2030년까지는 7,200만톤을 달성하는 것이었음. 이 물동량 중에서 절반은 LNG가 될 것이며, 그 중 많은 물량이 아시아 방면으로 운송될 것이라고 한 바 있음. Yamal LNG사는 하절기 5개월 동안 물동량이 200만톤을 초과할 것이라고 하였음. 북극해항로상 또 다른 주요화물은 석탄이 될 것임. VostokCoal사에 따르면 고품질의 석탄 3,000만톤이 2025년까지 채굴될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천만톤이 될 것이라고 함.

▶푸틴은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러시아는 세계 5대 경제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22

○ Novat다사의 북극환적허브, 구소련 태평양함대기지에 건설 예정

▶Novatek은 캄파트카의 버려진 구소련 해군기지 Bechevinka에 환적허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연간 2,000만톤의 LNG환적을 위해 총 250억 루블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Novatek의 Aleksandri Fridman이 밝힘. 북극에서 생산된 LNG의 수출은 매우 중대한 문제임. Novatek은 북극에서 다수의 LNG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데, 생산된 LNG는 아시아시장으로 수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내빙LNG선을 건조하고 있음.

▶Bechevinka에서는 대규모 탱커선이 LNG를 하역하고 일반 LNG선에 선적할 수 있을 것임. Interfax통신에 따른 새로운 터미널 건설 준비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함. Novatek은 2017년 10월 캄차트카 지방정부와 새로운 터미널 건설에 대한 협약서에 사인했다고 함.

▶Bechevinka는 1960년대 구소련 태평양함대 잠수함기준으로 건설되었으며 1971년 모두 12척의 잠수함이 있었으며, 1996년 폐쇄되었음. 현재 Bechevinka에는 여덟 개의 3층짜리 건물, 학교, 유치원, 가게, 우체국, 발전소가 있음.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18

○ 올 여름, 러시아 북방함대 기지에 38,000톤의 화물과 군사설비 운송 예정

▶러시아 국방부는 올 여름 북극연안과 섬들에 있는 군사기지에 총 38,000톤의 화물과 군사설비를 운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함. 화물의 대부분은 겨울 대비 연료이며, 첫 선적은 콜라반도와 백해상의 군사기지로 이루어질 것임. 해빙이 녹으면서 노바야젬랴, 프란츠조셉과 세베르나야젬랴로 공급될 것임. 신시베리아군도의 Kotelny같은 원격지로의 운송은 월과 9월에 운송될 것이라고 북방함대가 밝혔음.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북극연안으로 군용공급선박이 화물을 운송할 것이며 또한 항공화물기도 참여할 것임.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북극기지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완하는 많은 투자를 했음. 가장 큰 프로젝트는 Kotelny코텔리에 공항, 12,000평방미터의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으며, 2016년 12월 중순에 북방함대에 인도되었고, 2017년 4월에는 프란츠조셉 최북방 Aleksandra에 건설된 14,000 평방미터 규모의 Nagurskoye기지임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15

○ 영국, RBS(Royal Bank of Scotland) 북극 자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단

▶RBS는 5월 29일 기후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HSBS와 같은 다른 은행들을 따라서 탄화수소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석탄광, 오일샌드 혹은 북극석유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파이낸싱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말함. 지난 4월 HSBC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오일샌드와 북극 시추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다고 발표한 바 있음.

출처: af.reuters.com 2018.05.29

○ AkeBP 최근 4년 동안 바렌츠해 첫 시추 결과 석유가스 미발견

▶AkeBP가 최근 4년동안 시추한, 2014년 적은 양의 석유를 발견했던 지역에서 25km 떨어진 시추공에서 20미터 두께 정도의 가스층 소량을 발견하는 데 그쳤음. 이 지역은 사전 평가에서 20~35억 cbm에 달하는 가스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 북쪽 230km 떨어진 이 Svanefjell 전은 수심 700미터에 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31

○ 푸틴 대통령 지역 지도자 교체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러시아 지방 지도자 6명을 교체하였음. 최연소 주지사를 임명하거나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낮은 득표를 했던 지역의 지도자를 해임했음. 사하공화국은 지난 3월 대선에서 전국 평균 76.7%에 비해 낮은 64.4%를 득표한 지역으로 신임 주지사로 Aysen Nokolayev를 임명했음. 그 외 마가단주지사에게 Sergei Nosov를 임명했음. 튜멘주지사는 건설주택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주지사 직을 사임했음. 올해 30세인 Dmitry Artyukhov 신임 야말-네네츠 주지사는 러시아 역대 최연소 주지사가 되었음. 아무르자치구와 알타이자치구의 주지사도 역시 사임했음. 새로 교체된 주지사에게 푸틴의 지원은 신임주지사들이 오는 9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식 주지사가 되게 할 것임.

출처: themoscotimes.com 2018.05.29.

○ 로스네프찌사가 가스시장에서 가스프롬을 위협

▶로스네프찌는 가스프롬이 목표로 하고 있던 하나의 수십억 달러 계약에서 승리함. 또한 가스프롬의 핵심시장이었던 터키와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Iraqi Kurdistan에서의 가스전과 파이프라인 계약에서도 로스네프찌가 승리하였음. 석유업체인 로스네프찌의 가스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확장은 러시아 국영 대기업이 경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1,500억달러에 달하는 수익성 있는 유럽시장에서의 경쟁격화현상을 낳고 있음. 로스네프찌는 최근 몇 달간 전 가스프롬 직원 몇 명을 채용하여 가나 계약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알려져 있음.

▶로스네프찌가 가스프롬으로부터 가스시장의 지분을 뺏어오고 있으나 가스프롬의 지배력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가스프롬은 러시아의 PNG수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생산기업이면서 유럽에 대한 가장 큰 공급기업임. 2017년에는 40%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

▶로스네프찌의 노력은, 세계가 가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이동하면서 자사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로스네프찌 Igor Sechin회장의 푸틴에 대한 로비에 집중하고 있음. Sechin 회장은 푸틴의 강력한 동맹자로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오고 있으며, 2016년 푸틴에 대한 서한을 보내면서 이후 가스프롬의 수출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로비를 계속 하고 있음

출처: reuters.com 2018.06.1.

○ 푸틴 대통령, 행정부에 10월까지 러시아 내륙운송과 북극해항로 발전 계획 수립 지시

▶ 푸틴 대통령은 행정부에 10월1일까지 러시아의 주요 인프라 현대화 및 확대계획을 연구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지시함. 이 내용 가운데, 러시아 항만, 내륙수운 및 북극해항로 발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 지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정부에 북극해항로 발전 보장 과제가 부여되었고. 2024년까지 NSR 상의 물동량이 8천만톤으로 증대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출처: www.rg.ru 2018.5.9., www.finmarket.ru 2018.5.8.

< 조선 >

○ '즈베즈다' 조선소 저출수 쇠빙선 수주

▶ Rosmorport가 '즈베즈다' 조선소에 출수 3미터에 해당하는 쇠빙선의 설계와 건조를 발주하였음(계약금액 48.6억 루블). 완공일은 2012년 9월 30일임. 이 쇠빙선은 22740 프로젝트 쇠빙선으로 2014년 Rosmorrechflot와의 국가계약으로 FGUP 크릴로프스키가 설계하였음. 북극해에서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 활동할 것임. 전장 78m, 선폭 16.8m, 6.4MW급으로 1.5m 두께의 얼음을 쇠빙할 수 있음. 추가로 세 척의 선박 건조 옵션이 포함되어 있음. '즈베즈다' 조선소는 Rosneftegaz, Rosneft와 Gazprombank 콘소시엄으로 건설되고 있음. 현재 Rosnefteflot가 발주한 다섯 척의 휘발유 추진 Aframax 선박이 건조 중이며, 1호선은 2020년에 인도될 예정임

출처: www.eastrussia.ru 2018.05.29

< 북극물류 >

○ 러시아 회계원, NSR과 북극인프라에 대한 Rosatom 법안 지지하지 않기로 함

▶ 러시아 연방의 국회 산하 회계원(Accounts Chamber)는 Rosatom 국립원자력회사의 제출 법안과 연방의 규정과 법에 대한 전문가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한 후 제출 법안을 지지하지 안하고 결정하였음. 2017년 10월 28일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Rosatom이 제출한 법안은 북극해항로개발과 인프라 개발, 수로지원, 보안과 관리 권한을 Rosatom에 부여하며 관리기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었음. 회계원에 따르면 그 법안은 Rosatom에 다른 연방집행기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원자력쇄빙선의 안전한 운영과 개발을 포함하여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있어서의 정부전략에 대한 제안을 개발하는 중요한 기능은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기능은 단지

북극해항로에서의 에스코트와 관련된 쇄빙선만 담당해야 하는 것임

회계원의 의견은 이것은 푸틴대통령의 지시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계원은 또한 제출법안이 예상하는 몇몇 기능의 실행을 위한 할당은 2018년 예산에 배정되어 있지 않거나 2019년과 2020년 계획예산에도 배정되어 있지 않음. Rosatom의 새로운 기능을 위한 자금 소스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방재무코드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출처: en.portnews.ru 2018.05.17

○ Gazprom 북극철도를 위해 LNG추진열차 24량 발주

▶러시아 예카테리나의 Sinara Transport Machines사는 야말반도의 가스프롬 철도에서 사용될 새로운 열차를 제작하여 공급할 것임. 5월 24~26일 개최된 상트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Sinara Group과 Gazprom간 계약조인이 이루어졌음.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차(10량은 1,200마력, 14량은 2,000마력)는 2024년까지 인도될 것이라고 가스프롬에 밝혔음. Sinara Group은 동 열차는 8,20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할 수 있을 것이며 환경친화적이며 연료비를 40%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가스프롬 자회사 GazpromTran는 Obskaya-Karskaya 간의 572km 야말 철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Sabetta까지 확장될 것임. 2011년 건설된 이 철도는 Gazprom의 대표적인 가스전 Bovanenkovo를 연결시키는 철도이며 Gazprom의 물류에서 핵심적인 시설임. 5개의 역, 12개의 복선구간과 총 12km에 달하는 70개의 교량구간을 포함하고 있음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28

○ 무르만스크역 일일 물동량 최고치 경신

▶2018년 5월 18일 무르만스크 철도 터미널이 1,120량의 물동량을 하역하여 일일 물동량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러시아철도당국이 발표했다. 726량이 석탄을 하역했으며 무르만스크항에서 선적되어 수출될 것임. 이 기록은 무르만스크항의 성장을 견인하게 됨. 2017년 무르만스크항은 5,170만톤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4.5% 증가한 것임. 무르만스크-페테르부르그를 연결하는 October Railway는 무르만스크항에서 선적될 화물을 유입하는 중요한 링크임. 수출선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도회사의 성장은 없었음. 2017년 이 철도를 통해 운송된 화물은 전년 대비 1.9% 성장에 그쳤으나, 2018년 4월까지 이 철도를 통한 물동량은 건설자재와 콘크리트 운송량의 증가로 급증하였음.

▶2017년 이 철도를 통해 운송된 9,900만톤중에서 2,400만톤은 철광석, 2,600만톤은 목재, 1,110만톤은 석유와 석유제품, 1,800만톤은 비료, 130만톤은 화학제품이었음.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25

○ Eurasian Development Bank(EDB), 러시아 Belkomur 철도 투자에 관심 표명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와 우랄 Solikamsa를 잇는 Belkomu 철도에 대한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EDB가 밝힘.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기간 중에 EDB의 Andrey Belyaninov는 Belkomur프로젝트 Vladdimir Shchelkov와 협력의향서를 조인하였음. "Belkomur프로젝트는 잘 설계되어 있으며, EDB는 유라시아 지역의 발전연구소로 이 프로젝트의 실현에 명백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Belyaninov가 말함. Belyaninov는 러시아의 전 연방세관 담당자로 EDB가 이 철도 건설 파이낸싱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함. 그 동안 이 철도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아르한겔스크 지사와 Komi공화국 대표도 참석하였으며 동 협력의향서에 대한 환영을 표했음. 이 Belkomur철도는 우랄 지역과 북극해를 잇는 최단 물류링크가 될 것임.

출처: thebarentsobserver.com 2018.05.31

< 국제협력 >

○ 서부 발트해에서 환경론자들, 부유식원자력발전설비에 대한 위험한 접근 시도

▶덴마크 인근 해역에서, 스웨덴연안경비대, 덴마크 해군과 협력 하에 무르만스크로 운송되던 Rosatom의 부유식원자력발전설비(Floating Nuclear Power Unit)의 운반항로 상으로 접근하려던 반핵극렬운동가들의 시도가 있었음. 반핵극렬운동가들은 승선한 선박이 견인되고 있던 선단의 충돌항로로 진입하려고 시도했었음. 스웨덴연안경비대 선박, 덴마크 해군 군함과 Rosatom의 승무원들이 이를 저지하였음.

출처: finanznachrichten.de 2018.05.04

○ 스웨덴, 보다 많은 데이터센터 유치 희망

▶스웨덴의 낮은 전기요금이 새로운 데이터센터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이라고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중국업체들과의 논의에서 스웨덴이 말하였음. 수력과 풍력발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이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원자력발전소도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은 가장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음.

▶스웨덴은 페이스북의 데이터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규모를 두 배로 증가시킬 예정임. "우리는 미국 기업들과 보다 많은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들도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스웨덴 Vattenfall의 전략담당 Andrea Regnell 이 로이터통신에 말함. 스웨덴은 2020년까지 8개의

원자력발전기를 폐쇄할 예정이나, 대규모 풍력설비가 추가될 예정이며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2017년 스웨덴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요금에 세금을 97% 깎아 주었으며 노르웨이도 이를 뒤따르고 있음. Vattenfall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스웨덴의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으로부터 이익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에는 탄소섬유생산과 데이터센터가 대표적임.

출처: arctidtoday 2018.05.10

-끝-